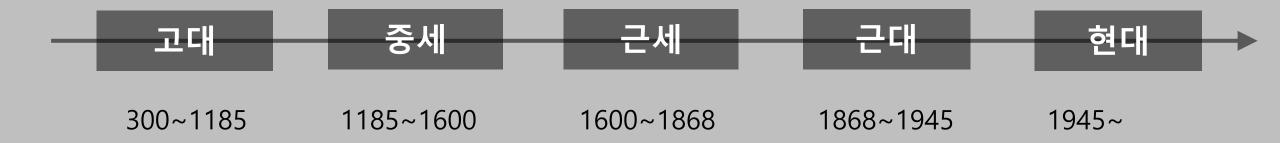
13. 경제대국 일본의 빛과 그림자

부산대학교 2024년 여름계절수업 <일본의 역사와 문화> 조 승 미

일본사 연표



주제

- 고도성장기
- 버블경제의 종언
- 우경화 현상
- 현대 일본의 대중문화

경제대국으로의 성장

- 국민소득 배증계획1960~1970
- 10년 내로 국민소득을 2배 증가시키겠다는 국가 주도의 성장 계획
- 안보에서 경제로의 정치 쟁점 전환
- 계획보다 빠른 성공적 달성
- 50년대~70년대 초중반까지 20년 이상 매년 약 10% 국민총생산 증가
- 도쿄 올림픽1964과 오사카 세계 박람회1970의 성공적 개최
- 60년대 후반~2000년대 후반까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







1억 중산층사회

- 경제성장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빈부격차 적음
- 일본인의 90%는 자신을 중산층이라 생각(一億總中流)
- 내수가 성장의 주요 엔진
- :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3종의 신기(세탁기·냉장고·텔레비전)

완만한 경제성장

- 닉슨쇼크1971
- : 미국의 고정환율제 폐지
- 오일쇼크1973
- :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공급 제한 조치
-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 후 1970년대 말 다시 완만하고 안정적인 성장
- 80년대 말에는 세계 1위인 미국을 위협할 정도에 이름
- 소니의 전자제품, 도요타·닛산의 자동차, 캐논· 니콘의 카메라



버블경제의 형성

- 플라자합의1985
- 5대 선진국 재무장관들이 진행한 환율에 대한 합의
- 미국의 경제 위해 엔화 등을 평가절상하는 통화정책
- → 엔화가치 2배 상승
- 일본은행의 저금리정책1987
-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대비
- 이자율(기준금리) 5% → 2.5%로 낮춤
- 통화공급의 증가를 초래해 10% 이상 인플레이션 발생
-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투기열풍

버블경제의 종언

- 경제안정 위해 이자율 인상과 은행대출 억제1990
- → 자산가치의 폭락
-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국민총생산
- "잃어버린 10년?"
- : 90년대 내내 실질성장률 1%의 디플레이션의 시대
- 90년대부터 성장은 더디지만 비슷한 경제규모 유지

보수정치의 고착화

- 경제성장이 생활수준의 향상 가져오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
- 금권(金權) 정치
-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관료·정당·대기업 간의 유착관계 형성
- 록히드 뇌물 사건1976
- 55년 체제의 종언1993
- 1993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며 자민당의 독주 끝남
-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민당과 사회당의 연합
- → 각 정당 사이의 본질적 차이점이 사라지고 총보수화 현상
- 세습 정치인들의 등장



戦闘現金を四回受領 から五億円 ド疑獄

**土カ所を搜索。

翻**



90년대 후반 일본은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

우경화 현상

- 국기·국가법 통과1999
- : 히노마루(日の丸)와 기미가요(君が代)의 법제화
-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둘러싼 논란
- 장기불황 아래 일부 일본인 사이에 등장한 국가주의적 조류
- : 새로운 일본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군사 대국화
 - "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력 보유한 '보통 국가'로서의 일본" 주장



시민운동의 전개

• 일본의 보수화 견제하는 주요한 축

• 일본인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건사고의 영향

: 한신(阪神)대지진, 음진리교(オウム真理教) 가스테러 사건1995



일본영화의 부상

- 닛까스(日活) 설립1912
- 전화에 살아남은 쇼치쿠(松竹)·도호(東宝) 등의 주요 영화사의 설비
- 일본 국민들에게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GHQ의 영화관 재건 장려

만화와 애니메이션

• 전후 일본의 가장 발달된 대중문화

• 애니메이션이 발달할 계기를 가져다 준 전쟁

• 일본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<모모타로 바다독수리(桃太郎の海鷲)>1943

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개방

- 한일 수교1965 맺은 이후에도 일본 대중문화는 한국에서 금지됨
 - ← 독립 이후 일본과 거리를 두고 한국 문화를 재정립할 시간 필요
- 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1998~2003

감사합니다